

살인자의 술

보들레르

- 1 아내가 죽었어, 난 자유야!
그러니 실컷 마실 수 있지.
전에 한푼 없이 돌아올 때면
그년 고함에 신경이 갈기갈기 찢겼지.
- 2 이제 난 왕처럼 행복하야.
공기는 맑고, 하늘도 희한한지고...
내가 년에게 반하게 된 것도
그래 이런 여름철이었지!
- 3 가슴을 찔는 이 지독한 갈증
그걸 풀려면 아마도
그년 무덤을 채울 만큼의
술이 필요할 걸. -줄잡은 말은 아니지:
- 4 실은 년을 우물 속에 던졌거든
그리고 그 위에다 우물 변두리
돌들을 모조리 밀어넣기까지 했것다.
---잊을 수 있담 잊고 싶으이!
- 5 무엇으로도 우릴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애정의 맹세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도취의 멋진 시절처럼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 6 난 그날 밤, 년에게 컴컴한
길가에서 만나자고 애원했것다.
년이 왔어! ---미친 것이!
다소간에 우리 모두가 미쳤거든!
- 7 무척 지친 꽂이었지만 년은
아직도 예쁘더군! 그리고 난 또
너무나 년을 사랑했지! 그래서
말한 거야 <이승에서 꺼져라!>고.
- 8 이 내 맘을 이해할 놈 아무도 없어.
이 머저리 주정뱅이들 중 단 한 놈이라도
병에 찌든 밤마다 술로 수의를 삼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 9 쇠로 만든 기계인 양
불사신의 이 불한당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일찍이
참사랑을 안 적이 없어.
- 10 그 응큼하게 홀리는 마술이며,
아비규환의 다급한 불안의 연속,
그 독약의 병들이며, 그 눈물
그 쇠사슬과 해골 부딪는 사랑을!
- 11 ---이제 난 자유롭고 외톨이구나!
오늘 밤 난 죽도록 취하리라.
그땐 두려움도 회한도 없이
땅바닥 위에 벌떡 누울 테다.
- 12 그리곤 개처럼 잠들리라!
돌이며 진흙 따윌 실은
육중한 바퀴의 달구지건,
미친 듯 질주하는 화차건,
- 13 죄 많은 내 머릴 짓이기든가
한허리를 동강내도 무방하이,
그까짓 일, 난 신이나 악마나
성탁(聖卓)처럼 일체 개의치 않거든!

시놉시스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 국란을 우물 속에 던진 술주정뱅이 장호, 그는 매일 술에 찌들어 살던 사나이지만, 그의 삶은 아내 국란이 산 송장이 된 날 크게 흔들린다.

장호는 국란을 향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그는 그녀를 끔찍하게(말 그대로, 고통의 나날들)사랑했으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몸뚱아리일 뿐이다. 장호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아내를 가까운 마을의 우물 속으로 던진다.

이 살인 행위 후, 장호는 자신이 이제 자유롭다고 감탄한다. 술을 마시며, 국란 없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를 즐긴다. 그러나 정말 고함 없는 자유가 행복할까?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그의 심장을 계속해서 파고든다.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죄책감에 찌든 장호는 취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무자비하게 죽인 사실을 술로 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어떠한 술에도 취하지 않을 때, 옛날 그녀와의 고통스러웠던 사랑이 그를 괴롭힌다.

해질녘의 넓은 들판과 탁 트인 하늘 아래서 독백, 디제시스 사운드와 논 디제시스 사운드의 미분별

1,2,3,11,12,13

4

5,8,9

6,7,10

촬영장소



송파 올림픽공원 나흘로나무

형설관 옥상

해질녘 (1,2,3,5)

낮(4)

밤 (6,7,10, 11,12,13)

형설관 301호 (5)

1연 한컷(CU) 2연두컷(WS HA > WS LA) / 4연 고속촬영(로우앵글, 사물낙하), 로우앵글 하늘보이는 BS / 5연 한컷(BS LA) / 6-7연 롱테이크 (OTS, 여자풀사이즈) /

8-9연 롱테이크(CU사이즈 봄다운~허리) / 10연 한컷(CU사이즈 봄입 허리~얼굴) 11연 1컷(LS, 한번도본적없는나무)

12-13연 (FS, 부감? 가능성 검토, 레퍼런스-피셔킹 센트럴파크)



시나리오

기본적으로 디제시스 사운드를 사용하나, 이텔릭 처리한 대사는 입모양이 움직이지 않는다

텅 빈 하늘을 비춘다, 장호 얼굴이 불거진 채 비틀거리며 걸어온다.

장호: (와인 병나발을 분 뒤) 아내가 죽었어, 난 자유야!

(다시 와인을 입에 가져다 댄다) 그러니 실컷 마실 수 있지.

전에 한푼 없이 돌아올 때면, 그년 고함에 신경이 갈기갈기 찢겼지.

장호: (풍경을 감상한다) 이제 난 왕처럼 행복하이… 공기는 맑고, 하늘도 희한한지고…

(고개를 숙이며 팔목한다) 내가 년에게 반하게 된 것도

(고개를 치들며 머리를 짚는다) 그래! 이런 여름철이었지!

장호: (연거푸 와인을 마시며) 가슴을 찢는 이 지독한 갈증 그걸 풀려면 아마도 그년 무덤을 채울 만큼의 술이 필요할 걸.
- 출잡은 말은 아니지!

실은 년을 우물 속에 던졌거든, 그리고 그 위에다 우물 변두리 돌들을 모조리 밀어넣기까지 했것다.

우물에서 본 맑은 하늘에 와인색 천에 감싸인 국란(베개 뭉치)이 떨어진다. 천이 펼럭인다.

다시 장호를 비추며,

장호: -잊을 수 있담 잊고 싶으이!

장호: (이 순간만큼은 애듯함만 보인다) 무엇으로도 우릴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애정의 맹세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도취의 멋진 시절처럼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감정을 추스르며)난 그날 밤, 넌에게 컴컴한 길가에서 만나자고 애원했었다……

멀리 와인색 원피스를 입은 어렴풋한 인형이 백색광을 등지고 걸어온다, 장호는 그녀가 걸어온 방향을 본다.

장호: 넌이 왔어! - 미친 것이! 다소간에 우리 모두가 미쳤거든!

장호와 여인 서로를 마주본다. 장호의 뒷모습.

장호: 무척 지친 꽃이었지만 넌은 아직도 예쁘더군!

장호 얼굴에 차가운 달빛이 닿는다. (BS LEFT 10*)

장호: 그리고 난 또 너무나 넌을 사랑했지! 그래서 말한거야, 이승에서 꺼져라고!

장호: 이내맘을 이해할놈 아무도없어. 이 머저리 주정뱅이들중 단한놈이라도 병에찌든밤마다 술로수의를삼을 그런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쇠로만든 기계인양 불사신의 이불한당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일찍이 참사랑을 안적이없어.

국란의 입술은 새빨갛다. 미소라고 우기면 미소라고 인정할 만한 표정을 짓는다.

그 응큼하게 훌리는 마술이며, 아비규환의 다급한 불안의연속, 그독약의 병들이며 그눈물, 그쇠사슬과 해골부딛는소리나는 사랑을!

나홀로 나무 아래에서 휘적거리는 장호

장호: 이제 난 자유롭고 외톨이구나! 오늘 밤 난 죽도록 취하리라(와인을 들이킨다) 그땐 두려움도 회한도 없이 땅바닥 위에 벌떡 누울 테다.

멈칫 하더니 이내 풀썩 쓰러진다.

장호 들밭에 대자로 뻗어있다. 바닥이 조금씩 도는 것 같아 느껴진다.

장호: 그리곤 개처럼 잠들리라! 돌이며 진흙따윌 실은 육중한 바퀴의 달구지건, 미친듯 질주하는 화차건, 죄 많은 내 머릴 짓이기든가, 한 혀리를 동강내도 무방하이.

장호 무엇인가 결심한듯 입술을 질끈 물곤

장호: 그까짓 일, 난 신이나 악마나 성탁처럼 일체- 개의치않거든!